

어린이 책꽂이



▲식물을 부탁해! 꼭꼭꼭! =식물을 사랑하게 하는 녹색 만화. 농약과 산불, 가뭄, 태풍, 황사 등으로 식물이 겪는 아픔을 체험하며 해결책을 찾아내는 식물문 삼총사의 활약을 통해 식물이 왜 소중한지를 잘 알려 준다. 여러 식물을 실물과 가까운 세밀화로 표현해 자연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생생하게 느끼게 했다. <어린이·9천원>



▲할아버지의 비밀선물 =세계적인 아동문학작가 독서광으로 알려진 수지 모건스의 창작 동화. 독서의 즐거움이라는 중요한 주제와 끝까지 호기심을 자아내는 스토리, 개성 만점 캐릭터가 잘 어우러져 아이들에게 교훈과 재미를 동시에 선사한다. <시공주니어·9천원>



▲미리가본 국립중앙박물관 =한림출판사의 '세계 유명 박물관' 시리즈 4번째로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큰 국립중앙박물관이 자랑하는 유물 250여 개를 선정하여 소개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의 보고, 박물관, 유물을 통해 우리의 문화, 전통, 예술, 역사까지 살펴 볼 수 있다. <한림출판사·1만7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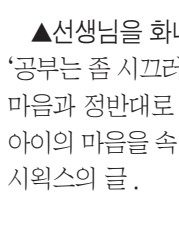
▲고약한 녀석이야 =황선미씨가 쓴 '고약한' 꼬마 나귀리 능청이가 등장하는 세 편의 단편을 담았다. 꼬마 반달이에게 엉뚱한 길을 가르쳐주고, 꼬마 토끼들의 생생이를 마음대로 빌려타다 고장을 내고... 능청은 친구 사귀기에 서툰 아이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다. <보은주니어·8천원>



▲내가 라면을 먹을 때 =일본 작가 하세가와 요시후미의 그림책으로 어린이에게 평화의 의미를 생각하게 한다. 한 어린이가 평화롭게 라면을 먹는 순간 다른 나라의 어린이들은 물을 길고 농사일을 하거나 빵을 파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세상의 아이들이 모두 우리처럼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한다. <그레이아이·9천800원>



▲지렁이가 흙 똥을 누었어 ='자연과 만나요' 시리즈의 세 번째 책으로 마당 곳곳은 물론, 텃밭 여기저기에 모양도 빛깔도 제각각으로 쌓여 있는 지렁이 똥을 찾아 들여다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생태화가 이태수의 세밀화와 지렁이의 생태를 운율있게 써내려 간 이성실 작가의 글이 돋보이는 자연 그림책이다. <다섯수레·9천500원>



▲선생님을 화나게 하는 10가지 방법 ='지각각' '괴발개발 쓰기' '공부는 좀 시끄러워야 잘 돼' 등 학생들이 맘속에 품고 있던, 자신의 마음과 정반대로 행동함으로써 선생님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싶은 아이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풀어놓는다. 프랑스 작가 샬비 드 마튀이 시익스의 글. <어린이작가정신·8천500원>



▲좋아해요 조선시대 ='맛! 시리즈' 우리 역사 세 번째. 519년 동안이나 이어진 왕조 조선시대의 역사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설명하고 있다. 조선 역사의 허약했던 이유와 반성의 메시지 또한 함께 결집된 어린이 신간이다. <주니어김영사·5천900원>



전쟁터에 버려진 동물들의 처참한 생존

'바그다드 동물원 구하기'

로렌스 앤서니 지음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고요? 제정신이 아니시네요. 나라면 당장 되돌아가서 에이한테 달려갈 텐데... 이곳은 시궁창이요, 싸워서 뺨을 가져도 없는 곳이라고요." 쿠웨이트에서 이라크 국경을 통과할 때 그곳을 지키던 미군병사가 앤서니에게 한 말이다.

'바그다드 동물원 구하기'는 사람도 살아남기 어려운 이라크 전쟁의 와중에 동물들을 구하려고 전쟁의 한복판에 자청해서 뛰어난 로렌스 앤서니의 실화를 담은 논픽션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줄루랜드에서 야생고기를 돌보는 사냥금지구역 '블라블라'를 운영하던 앤서니는 CNN을 통해 이라크 전쟁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바그다드 동물원 소식을 듣게 된다.

그는 전쟁이 일어나면 동물들이 도망치지도 못하고 스스로를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해 2003년 이라크행을 결심한다. 갖은 노력 끝에 이라크 입국허가증을 받고, 국경을 넘어 바그다드 한복판에 있는 바그다드 동물원까지 향하는 길은 말 그대로 죽음을 각오한 여정이었다. 천신만고 끝에 도착한 동물원의 모습은 처참



이라크 바그다드 동물원 입구에서 동물원 출입을 통제하는 미군병사와 대화하고 있는 로렌스 앤서니. (사진 오른쪽) (드인물 출판사 제공)

했다. 벽의 일부는 포탄에 무너져 있었고 남은 벽에는 수많은 총구멍이 나 있었다. 직원이 없이 버려진 동물원은 약탈꾼들의 세상이었다. 각종 새들은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식량이 됐고 기린도 도둑당해 고기가 되는

신세를 면치 못했다.

저자는 당시 광경을 마치 폭풍이 휩쓸고 지나간 자리에 한 차례 더 폭풍이 지나간 듯한 모습으로 묘사하면서 차라리 총을 하나 사서 동물들을 하늘나라로 고이 보내주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미군에게 자살폭탄대로 오인되어 사살될 뻔한 타조들, 똑바로 서 있지 못할 만큼 비좁은 암시장의 우리 안에 갇혀 어딘가로 팔려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기린들, 일곱 가족이 모두 굶어 죽은 뒤 홀로 살아남은 새끼 원숭이...

또한 저자는 그를 돕는 이들과 함께 동물원의 동물들이 건강을 되찾고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기 위해 얼마나 힘들고 고스트런 일들을 겪어야 했는지 소개한다. 사담 후세인의 아들 우다이와 궁에서 기르던 사자들을 구출해 내기 위해, 끔찍한 암시장에 팔려간 동물들을 구하기 위해, 아부 그라이브의 음침한 마구간에 사담 후세인이 숨겨놓은 혈통 좋은 아라비아 종마들을 구하기 위해 헤쳐나가야 했던 머리털이 곤두서는 순간들을 흥미롭게 풀어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동물원은 정상을 되찾고 2007년 7월 17일 바그다드 동물원은 다시 문을 열었다. 그가 구한 것은 동물과 동물원이 아니라 '하나의 세계'였다. <드인물·1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노무현 정권 '실세' 헌법 고찰

'후불제 민주주의'

유시민 지음



노무현 정권의 '실세'였던 유시민 전장관이 18대 총선 낙선 후 긴 침묵을 깨고 그동안의 생각을 책 '후불제민주주의'로 엮어냈다.

그는 지난해 '지식소매상'이라고 박힌 명함을 들고 출판사 구석방에서 집필에만 몰두해왔다. 오랜 성찰끝에 그가 도착한 곳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 헌법'이다. 저자는 이 헌법의 조문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간상과 세계상을 그리고 있는지 음미하며, 이 조문들이 담고 있는 당위와 이상의 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을 과제로 제시한다.

"이명박 정부의 '문명역주행'은 후불제 민주공화국에서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이다. 선거를 통해서든 직접 행동에 의해서든 국민은 정치권력의 '문명역주행'과 헌법 파괴 행위를 언제든 반드시 끝낼 것이다. 그런데 짧은 기간 안에 제대로 끝내지 못하면 국가 전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입게 된다." (본문 24쪽)

저자는 "우리의 민주주의가 정직한 대가를 먼저 치르기 전에 이미 제도와 법 규정의 형식으로 부여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때문에 "비용과 대가를 할부로 치를 수밖에 없다"고 설명한다. <돌베개·1만4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흥미진진한 '뮤지컬 백과사전'

'뮤지컬 이야기'

이수진·조용신 지음



최근 가장 각광받고 있는 문화 장르는 단연 뮤지컬이다.

뮤지컬의 탄생지는 바로 미국 브로드웨이. 전세계 각국에서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뮤지컬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라는 창을 들여다 보면 된다.

뉴욕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이수진·조용신씨가 쓴 '뮤지컬 이야기'는 450여페이지가 넘는 방대한 분량에 뮤지컬의 모든 것을 담은 '뮤지컬 백과사전'이라 부를만 하다.

'흥미진진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100년사'란 부제를 단 책은 5년 전 나온 '뮤지컬 스토리'의 개정증보판이지만 2008~2009 시즌 등 최근 작품까지 꼼꼼히 살펴 내용이 알차다.

책은 소비즈니스의 시작을 알린 뮤지컬의 탄생 배경에서부터 뮤지컬의 진화 과정과 시스템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보통의 뮤지컬 관련 서적들이 작품 나열에 그치는 데 반해 이 책은 뮤지컬의 성장 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의미가 있다.

'시카고'로 유명한 뮤지컬계의 거장 손드하임 등 유명 인사들을 비롯해, 뮤지컬 영화의 스타들, 극장주 극장주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400여편의 뮤지컬 작품을 소개하고 360컷의 자료 사진과 친절한 주석을 달았다. <숨·2만8천원>

/김미경기자 mekim@kwangju.co.kr

경제현상 파헤치며 대안 찾아

'...경제독해'

세일러 지음



글로벌 경제위기로 제도권 경제학계도 '공황'이다. 위기를 예고하지 못했다는 비난에 이렇다할 대안을 내놓지 못하면서, 소속 기업이나 기관의 입장을 고려해 영무채처럼 듣기 좋은 말만 늘어놓을 뿐이다.

하지만, 2008년 말부터 아고라 경제토론회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심도있는 분석과 통찰로 인기를 끈 '세일러'(필명)가 쓴 책은 다르다. 정부도, 언론도, 제도권 경제전문가 그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는 경제의 참모습을 낱알이 파헤치며 대안을 찾는다.

책은 작금의 한국경제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현상을 친절하고, 알기 쉽고, 독자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가르쳐 준다.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할지라도 '선물한 매도' 때문에 외환시장이 달러가 팔려서 향후 2~3년간은 환율이 오를 수밖에 없다는 분석은 확실하 제도권과 다른 시각이다.

저자는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전 세계 경제위기의 특징 중 하나는, 우리 스스로 판단하기를 요구한다는 점"이라며 외환시장과 자산시장의 관계, 은행의 위기와 금리, 경제지표를 읽고 대처하는 법 등을 함께 제시한다. 책장을 넘기다 보면 경제신문을 아무리 읽어도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던 경제현상들이 안개 걷히듯 산뜻하게 다가온다. <위즈덤하우스·1만5천원>

/김주영 경제부장 jnews@kwangju.co.kr

Advertisement for 'Small Business Big Support' (작은만남 큰기쁨) featuring various local businesses and services in Gwangju. Includes categories like 'Future Doctor' (미래한의원), 'Wedding Dress' (웨딩패리스), 'Real Estate' (부동산), etc.